

體育을 통한 人間形成의 史的 考察

이 병 식

광주 서원 전문학교

A HISTORICAL REVIEW ON THE FORMATION OF HUMANITY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Byoeng Sik Lee

Gwangju Seowon Junior College

<차례>

Abstrat

I. 머리말

II. 原始社會의 體育과 人間形成

III. 古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IV. 中世의 體育과 人間形成

V. 르네상스와 近世의 體育과 人間形成

VI. 近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VII. 現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VIII. 맺는 말

—ABSTRACT—

The object of education is to make the man who has the knowledge, the virtue, and the health to form the humanity, so it is useful to study how the physical education has been affected on the formation of humanity through the historical review of physical education for the education of school. The origin and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re the same as those of humanbeing and they have been changed with the current of times. This review is summerized as follows;

1. The formation of humanity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has been done well when the nation was in the beginning and in the prosperity of ages. This means that the nation education the man whom needed the society and the times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The kinds of that education could be devided into two sides; one was that the nation was supreme and each person was belong to the nation, the other was to try the development of society on the basis of the public good. This can be expressed the other words that where the object of formation of humanity brings to focus on the nation or the individual. The nations which were belong to the former were Sparta

- and German and the letter Athene and U.S.A.
2. The nations which the physical education was neglected in their education and also was thought as a pleasure collapsed. A thought of physical education as a pleasure and the appearance of professional sportsman were the reasons why the ancient nations were collapsed if we review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This gives us a good instruction and we must not repeat the historical.
 3. The object of physical education was to try the development of mind and body from a point view of dualism since the ancient times, but now this is studying in the side of monism. We must study more on the problems of mind and body if we want to form the humanity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4. Now the subjecthood of humanbeing is at the crisis owing to the scientism. So we must establish the way of forming humanity on the basis of subjecthood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5. The physical education has been done a great role in the side of establishment of humanity for the nation and the society. The physical education is one of the quickest educational ways for rearing the man who has the good humanity, so the government and the school authority school be more careful concern on the physical education for the future of nation.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자주 現代教育이 人格教育에 失敗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교육의 目的이란 어디까지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本然의 임무라 할진데 인격도야에 充實하기 보다는 第二次的 第三次的인 것에 기울어진 結果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教育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學校體育이 教育의 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體育의 歷史를 考察하여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人類의 歷史와 기원을 함께 하는 身體活動 즉, 體育은 民族의 歷史的 背景을 바탕으로 宗教, 政治, 經濟, 文化 등 諸要求에 변모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民主主義 生活原理에 입각하여 체육을 規定해 가져니와 이 규정도 주어진 諸現實이 變化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要求를 낳는 歷史的 한 場面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어떻든 오늘날 教育은 넓은 의미에서 다루어지고 知識의 傳達이나 學校生活에 局限되지 않고 學生들의 全體生活을 통하여 弘益人間을 기른다는 意味를 갖게 됨에 따라 體育의 比重은 교육 속에 確固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心身二元論에서 心身一元論으로의 轉向은 身體를 自我의 外的象徴으로 끌어 올렸다. 따라서 身體를 어떻게 運動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는 어떤 人間을 育成할 것이냐 하는 問題와 같은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問題는 체육이 他教科와는 달리 大筋肉活動에 依해서 이루어 지는 身體 育成으로 부터 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거니와 百知不如一行的 道를 닦는 것이 體育이라 하겠다.
이런 現代的 狀況과 人間育成的 觀念을 念頭に 두고 신체활동 나아가서는 體育이 時代와 社會의 變遷에 따라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原始社會의 體育과 人間形成

原始社會는 體育이라기 보다는 身體活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身體活動은 生과 直接 連結되는 衣食住를 求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달아나는 먹이(動物)를 쫓는데서 달리기를 修鍊하게 되고, 손이 닿지 않는 큰 나무 위에 달린 열매나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 던지기를 배웠다. 그리고 도랑이나 뚝을 넘기 위해 조약력도 길러야 했을 뿐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헤엄을 쳐야 했다.

이런 基本的인 수단은 知慧와 함께 점차 發展하여 활이나 창같은 기구를 使用하게 되었고, 技術도 비례하여 발전을 가져 왔으며, 모방, 기억, 반복, 연습등의 原始的인 教育方法도 取해졌다. 한편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超人間的인 힘의 支配를 믿었으며, 天災地變이나 不漁不獵이 계속되면 祭를 올렸다. 이 行事는 效果가 나타날 때까지 노래와 무용등의 신체운동이 행하여 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小集團은 차츰 커져 氏族社會는 部族으로 옮겨 지거니와 原始社會에 있어 特記할 만한 것으로 成人式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制度는 集團安保의 한 手段으로 原始 韓民族에도 행하여 졌다. 즉 魏志東夷傳에 依하면 「官家로 하여금 城廓을 쌓게 되자 나이가 어린 勇健者는 모두 등가죽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통했다. 또한 丈許의 나무를 꽂고 온종일 歡呼하며 힘을 써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¹⁾고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알려진 內容으로는 斷食을 하게 하고 생매장을 당하고, 이를 뺏아든가 몸에 심한 상처를 입힌다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의 심한 苦行을 強要하여 마침내는 失神狀態에 빠지게 되며 그로부터 깨어났을 때는 그는 전혀 딴 사람으로 되었다. 이때 부터 그는 成人으로서 青年集團의 一員으로 編入되는 것이었다²⁾.

이상의 考察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식주의 해결 내지는 集團安保를 爲한 身體活動이었다.

둘째, 體育의 觀點에서 볼 때 基礎運動 能力 내지는 과도적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原始社會의 人間形成은 人間이 지닌 限界克服의 발자취를 남겼다.

Ⅲ. 古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金屬器와 文字를 使用하면서 生産力은 비약적으로 發展하여 生活에 差異가 심해졌다. 여기에서 共同生産過程은 붕괴되고 개별적 生産活動이 활발하여 지게 되었다. 따라서 貧富의 差異가 심해져 貴族階級을 낳고 점점 血緣的인 差長마저 희박해져 氏族社會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氏族社會의 붕괴와 아울러 大集團을 단위로 하는 國家가 出現되고 강력한 政治組織이 要求되

1) 三國誌 魏書 卷30 東夷(朝鮮史 第一編 P. 38)

2) 教育史 韓基彥 法文社 1972. P. 17-19

면서 歷史는 巴야흐로 文明社會에 開花한다.

1. 호메로스時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호메로스의 二大 叙事詩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는 西洋古典 가운데 最古, 最大의 古典일 뿐 아니라 全世界 人類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안겨준다.

하인리히 쉴리만은 一生을 바쳐 호메로스 研究에 몰두하여 마침내 作品이 虛構가 아님을 증명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³⁾.

이 詩에는 희랍인이 바라는 理想像이 그려져 있고 그 當時 盛行한 스포츠 競技의 양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즉 일리아드 第3章 「임시휴전과 결투」 中의 人物評에는 勇將들 모두가 當당한 體格(키, 어깨의 폭, 가슴의 둘레) 毅然한 風格, 뛰어난 體力, 技術등 身體的 理想像임을 노래하고 있다⁴⁾.

이는 體力이 優秀한 者는 精靈도 旺盛하다고 보는 古代社會의 觀念을 나타내고 있으며, 王 또는 支配者는 偉大한 競技者인 同時에 英雄이었다. 이 英雄은 戰爭에서는 戰法에 能한 勇將이었고 說得力과 統率力을 지녔으며 尊오와 슬픔을 초월한 人間愛에 넘쳐 있었다.

일리아드 23장 「장례와 경기」에는 Pentathlon을 비롯한 8種目的의 競技가 벌여 지거니와 여기에서 우리는 現代人이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맨십을 엿볼 수 있다⁵⁾.

이 외에 오딧세이 6장과 8장에는 球戲 무용, 경기 등의 레크레이션의 스포츠가 있었음을 示唆하고 있다⁶⁾.

위에 열거한 諸競技에는 많은 觀衆이 힘겨하여 競技무드의 상승에 따라 觀衆의 긴장이나 흥분도 높아지고 있음을 잘 묘사하였고 勝敗에 무관계한 놀이로 부터 많은 상품이 걸린 各種 스포츠가 행하여 졌음을 알려준다. 이 作品이 3,000年 前의 傳說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볼 때 그 의의는 더욱 큰 것이며 最近에야 겨우 레크레이션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비추어 缺의 의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考察에서 다음과 같이 結論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미 3,000년 前에 心身의 調和를 理想으로 하는 社會的 理想像이 그려져 있었다.

둘째, 레크레이션의 現代的 意味에 미칠 수는 없지만 아무 부담없이 餘暇를 즐기는 生活相은 크게 사야 할 것이다.

셋째, 靑少年을 爲한 敎育으로서의 體育은 明確하게 存在하지 않았다.

2. 스파르타의 體育과 人間形成

스파르타는 紀元前 12世紀에서 紀元前 9世紀에 걸쳐 南下한 도리스人이 建設한 Polis로서 初期에는 自由롭고 明快한 氣質이었으나 侵略을 폴리스 成立의 前提로 하면서 樣相은 달라졌다. 즉 敵意에 찬 被征服民의 支配를 爲해서 國家防衛組織과 靑少年 敎育의 強化에 關한 法律을 만들어 愛國心에 불타는 勇猛果敢한 軍人育成을 理想으로 한 것이다.

體育도 이 至上의 目標을 向하여 철저한 國家의 管理下에 嚴한 訓練이 男子에게 주어졌다.

3) 梁秉祐 譯 世界文化史 上卷 乙酉文化社 1967. P. 35

4) 柳玲 譯 일리아드 正音社 1971. P. 45

5) 上揭書 圖說 世界體育史 1968. P. 30-32

6) 柳玲 譯 오딧세이 乙酉文化社 1971. P. 347~372

탄생된 子息은 國家를 爲해 貢獻할 수 있는 어린애 만이 生存權이 부여되고 虛弱者는 洞窟에 버림을 받았다. 選擇받은 어린이는 6歲까지 어머니 밑에 養育 되었지만 어머니는 國家의 指令에 依해서 엄격히 키워졌다. 7歲以後는 共同 訓練所에 收容되어 訓練을 받았다.

12歲以後는 一年 一衣의 옷을 입고, 入浴도 許容되지 않고, 肉食조차도 적은 量으로 이겨내야 했으며, 잠 자리도 손수 만들어 겨울을 나아했다. 이런 혹독한 訓練은 戰場과 直結되는 面目下에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너무나 野獸의인 것이었다.

지도자는 少年에게 薪, 家畜, 食物 등의 徵發을 命하고 成功한 경우는 行爲의 巧妙함이 賞讚되었으나 發見되는 경우에는 嚴罰에 處해졌다. 祭日에는 教育總監의 鞭撻行사가 열려 가축 끈으로 맞아 苦痛에 이겨낸 者에게는 勝利의 榮光가 주어졌다.

體育種目은 走力과 腕力의 鍛鍊을 爲해서 槍과 圓盤을 했고 그 외에 레스링, Boxing 格鬪(年少者에게는 복싱과 함께 禁하였다) 수렵, 승마, 水泳 등이 課해졌다. 知的인 學習은 最少限度의 읽고 쓰기에 그치고 有形 無形의 어떤 일을 即席에서 行하는 訓練이 食後에 주어져 機智에 찬 寸言을 키웠다.

18歲~19歲의 鍛鍊은 特히 嚴格해서 10日마다, 身體能力과 市民權에 對한 熱意가 테스트 됐다. 青年期부터는 軍隊에 編入되어 實戰과 軍事訓練으로 本務를 遂行했고 30歲에 비로소 結婚이 認定되었다. 市民權은 갖기도 兵役의 義務가 주어지는 한 獻身해야 했고 60歲까지는 家庭生活은 하나 共同食事を 하였다⁷⁾.

戰爭이 없는 平和時에 있어서의 演說에서 까지도 軍事的 內容이 풍기는 것이어야 했다⁸⁾.

結局 스파르타는 恒常 戰時에 臨한 心的 態度를 갖추어야 했으며 하나 하나가 命에 依한 訓練의 場으로서 人間 個個의 價値는 나라의 發展에 統制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教育은 올림픽에서 많은 入賞者를 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스파르타 教育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勇敢한 戰士라는 限定된 테두리에서 人間이 育成됐다.

둘째, 局限된 一面的인 教育은 弱者 앞에서는 強했으나 對等한 者 앞에서는 결함이 많았다는 것.

셋째, 어떤 目標를 向해 쏘는 그 情熱과 그 實踐力만은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

넷째, 멸망의 原因을 스파르타식 教育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으나 내가 보기는 後代의 스파르타인이 타락하면서 教育自體가 타락한데 主 原因이 있다고 본다.

3. 아테네의 體育과 人間形成

아테네는 서로 다른 세개의 村落이 連合함으로써 이루어진 Polis이다. 즉 農業을 經營하는 保守的인 村落과 畜産業을 하는, 自由롭기는 하지만 生活이 運轉하지 못한 村落과 工藝와 貿易을 하며 進取的인 氣象이 짙은 세 村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住居의 性格도 生業도 다른 세 地緣社會가 宗教的 經濟的 또는 軍事的 必然性에서 發足된 것이다.

이런 成立 事情은 일찍부터 民主政治 實現의 可能性을 많이 內包하고 있었다고 하겠다⁹⁾.

7) 梁秉祐 譯 世界文化社, 乙酉文化社 1968. P. 88

8) 이태화 체육사 형성출판사 1974. P. 49

9) Leonard: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Engle woodclifts, New Tersey Prentice Hall InC., 1968. P. 29

아테네는 스파르타와는 전연 달리 貴族의인 面은 있었으나 民主的 傾向이 強하여 市民들은 各各 相異한 社會的 役割을 서로가 忠實히 履行함에 依해서 全體로서의 Polis의 繁榮은 주어진다 고 生覺했다. 즉 「良好한 市民」이란 意味는 스파르타와 같은 國家에의 絶對的 忠誠과 服從이 아니었고 그 나름의 職分에 따라서 卓越性을 發揮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紀元前 600~400년의 民主政治時代에는 한층 이 傾向이 濃厚하였다.

靑少年의 教育이나 其他 人間育成을 爲한 指導는 各 家庭에서 比較的 自由롭게 실시되었다.

아테네 社會가 要求한 人間像은 身體的, 道德的, 知的 또는 美的으로 各 方面이 均等하게 發達한 사람이었다.

7歲부터 시작되는 自由民 男兒의 制度的인 教育도 知的과 體育과를 同時에 取扱하여 mousike (음악)과 Gymnastike(체육)으로 크게 나누고 이에 割當하는 時間은 거의 같았다. 前者는 音樂 文學 演劇 文法등이었고 後者의 內容은 走, 跳, 投 및 格을 主로 하고 各種目은 나체로 훈련하는 것이었다.

한 種目에 치우침이 없이 同等하게 숙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4歲로 부터 始作되는 中等教育은 돈있는 사람만이 가르쳤으며 18歲부터 2年間(紀元前 330年 以後)의 兵役義務를 치루고 그것이 끝나면 獨者의인 社會生活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느 分野에 從事하든 간에 體育을 一生동안 태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生活樣式이었다. 그 뿐 아니라 체육관에는 哲學的 論議와 思考的 談話에도 參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Gymnasion은 身體文化의 中心이면서 精神文化의 據占이었던 것이다.

이상 아테네의 體育을 要約하면,

첫째, 人間本位에 立脚한 人間形成이 意圖的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

둘째, 心身의 調和的인 人間形成이 바로 Gymnasion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

셋째, 호메로스의 스포츠를 잘 승화시켰다는 것.

네째, 어디에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社會的 內的인 必然性에서 自覺된 實踐이었다는 것.

다섯째, 近代의 體育에 莫大한 影響을 주었다는 事實이다.

※ 아테익네 祭禮競技와 人間形成

아테네는 競技와 祭禮의 盛大함이 또한 特色이다.

희랍의 祭禮競技中 Olympia, Pythia, Isthomia, Nemea는 有明하거니와 祭神도 內容도 相異하다. 其中에도 有明한 올림픽의 宗教的 根源은 희랍民族祭中에 있었다. 경기는 神의 麗護下에 行하는 儀式으로서 平和裡에 相互間의 力量을 기우려 神의 評價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이 技能의 祭典은 희랍의 指導者의 男性을 完成하는 源泉으로서 國家的 社會的 基盤으로서의 價値를 갖고 있다. 때문에 長期間에 걸친 出場選手들의 訓練이 嚴重하게 行하여져 神에게, 자기에게, 法에게 부끄럽지 않는 行爲의 精進이 參加의 榮光에 잇닿는 뜻으로 理解된다¹⁰⁾.

무엇에도 拘束되지 않는 스포츠의 倫理觀이나 體力技能의 순수하고 高貴함은 金노스의 理念과 함께 神前에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이 되었으며 이 모습이야 말로 아테네의 調和的 人間像이 表出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與件은 東方의 專制主義 強大國의 侵略(페르시아 戰爭)에 對抗하여 全 희랍民族의 連合으로 戰勝을 記錄했으며 主導權을 지닌 아테네는 경제, 문화상의 번영

10) 올림픽의 歷史 학생체육연구회 교육과학사 1973. P. 35

과 함께 黃金時代를 맞게 되었다. 올림피아의 장려한 神殿이 세워지고 競技場 競馬場을 비롯할 수 많은 優勝者의 像이 세워진 것도 이 時代였다. 그러나 차츰 身體訓練의 價値 追求에는 等閑視하게 되고 知的面에 重點이 주어져 아리스토폴라네스나 플라톤 등의 身體運動 輕視의 위험성을 외치는 소리에도 관심이 없어져 파라이스트라나 김나지온은 政治의 集合所 소피스트의 討論의 場 나아가서는 商業的인 場으로 變하여 競技의 명예보다 物的 價値가 높아져 行하는 것에 價値가 있던 體育은 職業人의 商品으로 化하고 프로웨쇼날의 發興과 함께 後期 아테네의 體育 價値는 完全히 쇠퇴했다.

이러한 時勢는 Polis의 붕괴를 초래하고 마케도니아에게 굴복하고 말게 된다. 이에 對해 헤겔은 詩의 青年 아키레스에 依해서 幕이 열려 졌었지만 인제 現實의 青年 알렉산더 大王에 依해 幕이 내려졌다고 한 것이다¹¹⁾.

以上の 論據에서 가장 關心을 기우려야 할 곳은 몰락의 과정일 것이다.

즉 身體運動의 輕視 乃至는 프로웨쇼날化와 知的 편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파르타에서 一面性的 教育을 指摘했거니와 여기에는 그것과는 반대의 一面性이 주어진 것이다.

오늘날 프로웨쇼날의 범람이나 機械文明에로의 偏重性은 古代와 일맥 相通됨을 느끼게 되며 心身調和의 人間다운 것으로 돌아가 人間의 主體性을 確立함이 時急한 課題라 生覺된다.

4. 로마의 體育과 人間形成

로마는 紀元前 8世紀에서 紀元前 6世紀까지는 에트리아의 支配下에 王政으로 成長해 오다가 紀元前 500년경 支配를 벗어난 獨立國으로서의 共和體制의 行路가 열려진다.

紀元前 4~2世紀에는 征服國家로서 國外로 發展하여 紀元前 27년에는 帝政으로 점점 版圖를 넓힌다. 2世紀에 접어들면서 世界的 大帝國으로 最盛期를 맞고 3~4世紀에는 기우려져 東西로 分裂되고 476년을 기해 西로마 제국은 幕을 내린다. 이들은 實質剛健하고 實際的인 國民으로서 教育目標은 나라에 忠誠하는 軍人이 되는 것을 第一義務로 삼았다.

아테네를 침공하기 前까지의 體育은 아테네의 調和的인 人間과는 달리 健康價値도 武力으로서의 身體의 行動性과 實用性에 立脚한 技術로서 考慮되고 訓練되는 防衛 能力을 爲해 存在했다.

이때의 運動種目은 走, 投槍, 乘鳥, 베스링, 수영등이 주어졌다.

기원전 146년 아테네를 정복함으로써 희랍文化는 급격히 로마 제국내에 침투되어 比較的 短時日內에 로마 文化를 支配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인이 목격한 희랍체육은 기울어져 가는 落照와 같았음으로 強한 영향은 주지 못한 것 같다. 그 中에도 競技는 오히려 로마化 되었다.

바야흐로 全 地中海 國家들 手中에 넣은 強力한 權力國家로 君臨한 後로는 차츰 建國以來의 實質, 強健한 氣風은 사라지고 부유자의 낭비, 種族間의 內亂, 職業軍人의 常備, 道德心의 低下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狀況으로 體育에도 職業競技者가 나오고 戰亂에 被勞했던 國民들은 感覺的, 刹那的, 享樂的인 傾向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이리하여 體育은 보이기 爲한 것으로 떨어지고 人間 對野獸의 싸움을 위시한 퍼비넨나는 場으로 化하고 觀衆은 이를 보고 즐거하기에 이르렀다.

11) 체육사 개설 최인범 譯 수상계사 1973. P. 92

이 時代의 有名한 Circus Maximus는 38萬名은 受容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 때의 熱狂의인 모습과 享樂的인 國民상을 推測하기에 어렵지 않다¹²⁾.

이러한 로마 末期의 퇴폐적인 現像은 人間改造의 바람을 일으키게 했으며 中世로 移行하는 契機가 된 것이다.

이 時代와 現代를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 面을 들어보면,
첫째, 行하는 體育에서 보고 즐기는 체육으로 옮겨 갔다는 것.
둘째, 商業化, 職業化의 물결이 거세게 닦쳤다는 것이다.

IV. 中世의 體育과 人間形成

中世는 게르만 民族의 大移動으로 因한 西로마 滅亡 이후 루네산스까지(5~15C)의 1000年間을 말한다. 한말로 하면 크리스트敎의 유럽 支配라고 할 수 있는 時代이다. 이 時代를 暗黑時代라 불리지만 그것은 民族移動에 依한 古代文化의 瓦解를 生覺하면 理解될 것이다. 그러나 希臘文化는 東로마 帝國과 함께 길게 存續했고 決코 暗黑이란 事態는 出現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暗黑은 西歐에서의 事態를 말하고 있는 點에 注意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西歐는 800年頃 부터야 安定期에 들어가고 文化復興이 시작되지만 希臘 로마의 文化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安定은 勿論 思想的으로 크리스트敎의 絕對 支配下에 있는 것이지만 社會體制로서는 새로운 體制인 封建制度에 依한 것이었다. 中世文化는 BC에 가장 高潮期를 이루고 十字軍의 활약에 의해 中世 最後의 빛을 남긴 다음 封建制度는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中世史를 概觀하면 體育이나 스포츠가 古代와 같지는 盛할 수 없었던 事情은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中世에 있어서의 人間의 價値는 神과의 關係나, 神과의 거리에 依해 저울질 되고 神에 먼 것은 罪惡視 되었다.

이와 같은 神中心 思想으로 肉體는 精神의 現世의 關聯에 있어서 비로소 意味를 갖게 되었으며 身體蔑視 나아가서는 身體輕視의 身體觀이 支配의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現象은 한편 로마 末期의 코페상을 저주한 데서 나온 一面이라고 보며 보다 높은 次元으로 걸기 爲한 轉換期의 陣痛으로 볼 수 있겠다. 즉 永遠한 生命(精神)을 담은 聖스러운 肉體로서 또는 神이 깃드는 殿堂으로서 승화되기 爲한 과도기적인 領域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는 事實이다.

이렇게 볼 때 中世에 있어서의 肉體不正은 보다 理想的인 全人의 人間形成의 길로 引導했다고 價値를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 騎士의 體育과 人間形成

中世는 神앞에 모두 平等하다는 思潮에도 구애되지 않고 僧, 軍人, 勞動者의 區別로 부터 道德觀念, 言語, 服裝, 頭髮에 이르는 區別等 너무나도 모순이 많은 社會였다. 騎士는 社會機構의 必然性에서 생긴 것으로 神에 奉仕하는 面과 君主에서 奉仕하는 兩面에 걸쳐 있었다. 12C까지의 크리스트敎에 依한 國家 統一까지의 騎士體育에 對한 態度는 身體運動의 價値를 武力防衛

12) 東京敎大體育史研究史編 圖說 世界體育史, 新思潮社 1964, P. 45

力에다 두고 神 中心에 依持하여 鍛鍊運動에 힘썼다고 본다.

이때의 人間像은 사랑과 勇으로 修練된 武人으로서 近世 市民社會에 이룩되는 紳士道와 스포츠맨 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 僧侶와 스포츠

禁欲적인 生活態度는 中世의 特色이었고 승려는 그 典型的인 人物이었다.

그러나 實際로는 승려中에서도 스포츠 愛好家가 있었다. 特히 民衆과 접촉이 잦은 地方教會의 僧侶들은 볼 게임이나 낚시 등에 스스로 참가했다. 그리고 中世 後期에 오면 이 경향은 더욱 커진다.

이런 實情을 감안해 볼 때 中世가 體育을 否定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 因해 생기는 不美한 惡事를 염려해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리고 스포츠에 熱狂하는 民衆을 非難한 僧侶의 記錄은 그만큼 그 당시에 盛行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¹³⁾.

V. 르네상스와 近世의 體育과 人間形成

르네상스는 一般的으로 文藝復興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한 古代 希臘이나 로마의 復活은 아니고 여기서 一步 前進하여 넓게 人間性的 「再生」乃至는 解放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中世의 神 中心의 次元에서 離脫하여 어느 것에도 束縛되지 않고 自由롭게 物을 觀하고, 物을 生覺하는 人間中心에로의 흐름이고 人間個의 發見인 同時에 人間知의 發見이기도 하다.

여기에 생생하게 피가 용솟음치는 運動이 展開되는 것이다.

이 運動은 人文主義者들에 依해서 始作되어 알프스를 넘어 宗教改革으로 먼저 유럽 全土를 中世에서 解放시켜 가는 것이다. 즉 神 代身에 自己의 理性이나 自然의 法則을 重히 여겨 신앙의 테두리에서 知性을 解放시킨 것이다. 한편 地理的 發見에 依한 世界的 視園이 確立되고 政治的으로는 君主 專制國家를 이루면서 他大陸 植民地化 運動이 展開되고 內部로는 계몽운동으로 革命을 위시한 近代科學의 發達이 進行되어 유럽인은 全世界의 頂上으로 치달게 되는 것이다. 이런 時流에 쫓아 體育은 이태리에서 古代 希臘으로 돌아가 體育思想을 끌어내고 영불의 思想家들에 依해 그 意義를 고무받아 독일의 바세도우가 體育을 組織的으로 學校體系中에 再興시킨 것이다. 이를 살즈만과 구즈무쯔가 이어받아 近代體育이 本格的으로 체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구즈무쯔는 當時 少年들의 身體虛弱의 原因을 身體鍛鍊의 欠如에 있다고 指摘하면서 「우리들의 몸을 단련하면 먼저 神經을 예민하게 하고 運動을 하면 身體는 強健해지고, 流動的이 되고, 한층 精神的으로도 生氣가 넘쳐 지치지 않게 되며 勇敢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身體를 強하게 育成함으로써 達成된다」¹⁴⁾고 強調하면서 當時의 體育 反對論者들과 싸웠다.

이리하여 그는 近代 體育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고 오늘날 教育의 一領域으로서의 體育의 位置를 굳히는 端緒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에서 新風을 일으킨 體育의 물결은 全 유럽을 휩쓸고 全世界를 向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希臘에서는 體育이 先行되고 體育思想이 最後로 結末인데 反해서

13) 上掲書 圖說 世界體育史 1968. P. 63

14) 이태화 體育史概說 형설출판사 1974. P. 135~137

近世에는 겨우로 體育思想이 먼저 展開되고 다음으로 體育의 實踐이 주어졌다는 事實이다. 이는 自然的인 바탕위에 人間이 서서 精神의 世界에서 身體를 받아드린 것으로 中世에서 비롯된 所產으로 볼 수 있다.

VI. 近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불란서 革命 後의 各 國家는 近代的인 民主主義, 내쇼날리즘의 물결을 타고 國土保存을 위시한 交易擴大 或은 領土擴張의 氣運이 감돌았고 이는 나폴레옹의 出現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遠征은 오히려 各 國民의 내쇼날리즘을 공고히 함에 도움을 주어 스스로 敗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이른바 近代體育이 나폴레옹의 말발굽에 유린당했던 各地에서 내쇼날리즘의 고무와 함께 一齊히 싹트기 始作했다는 事實이다. 이때 特히 注目을 끈 사람은 독일의 얀을 비롯한 스웨덴의 링, 덴마크의 나아레칼 등이며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近代體育은 뿌리를 깊이 박고 世界를 向해 즐기차게 普及되어진 것이다.

이들은 서로가 共同分母위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즉 國際間의 不信風潮에 따르는 軍事力 培養의 氣運이 教育界를 統制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하나요, 國土防衛 乃至는 國土擴張의 國家的 施策에 適應하는 愛國心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體育을 勸進수법하는 과정을 걸게 되었다는 것 또한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는 사람이 독일의 얀이다. 얀은 政治的 解放運動의 옹호자로서 푸로시아를 外敵 나폴레옹의 손에서 解放하고 다시 독일 民族의 全的 統合을 計劃하는 運動에 큰 關心을 두었다. 따라서 그의 目的은 身體育成을 通해서 독일 精神의 高揚을 期하는 것으로 要는 祖國을 위해 獻身할 수 있는 強健하 勇敢한 젊은이의 成長 發達을 바란 것이다.

젊은이의 活力은 경기운동이나 體操運動에 依해서 養成된다고 믿고 또 階級差別을 打破해서 社會的 民主主義를 이룩함에 운동경기가 갖는 힘이 큼을 알아 그것을 利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그친 것은 아니다.

그는 「理性的으로 思考하고 人間的으로 느끼고 “자립적인 存在”인 참 人間을 위한 教育이 어디까지나 不可欠한 것이다. 總體의 人間의 調和的인 形成만이 모든 사람들의 身體와 精神의 奇形과 歪曲을 막는다」고 記述하고 있다. 따라서 쾰링은 完全한 人間으로 接近하는 過程이고 手段이었다고 概括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國家的인 大命題에 順應하면서 心身의 調和的인 人間 形成을 時流에 따라 기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戰爭의 危險에서 벗어나면서 부터는 學校 教育과 결부되어 正常的으로 돌아가 人間育成을 行하는 體育 本來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할 것이다.

※ 英國의 스포츠와 人間形成

英國의 스포츠는 Public School을 基盤으로 하지만 그 中에도 럭비학교 校長 Thomas Arn의 공로는 多大하다.

그는 形式的이고 嚴格한 訓育主義를 廢止하고 靑少年들이 沒我的 情熱을 쏟는 스포츠 活動을 教育內容으로 넣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자신의 自律的 精神의 自覺에 立脚한 自己統制를 믿고 可能한 限 많은 것을 맡기는 同時에 教師의 介入을 極力 억제하여 人格陶冶의 結실을 얻으려 한 것이다.

스포츠의 管理는 그들에게 일임하고 週三回 半日씩을 스포츠에 할애하여 團結, 規則의 遵守 全體에의 忠誠, 傳統의 尊重, 公正 等 이른바 스포츠맨십을 充分히 몸에 익힐때 까지 運動場에서 修練시킨 것이다. 이런 團體訓練의 結果 強健한 身體와 健全한 良識과 견고한 意志를 지닌 紳士가 養成되어 大荷帝國의 織榮에 貢獻하는 바 큰 貴重한 役割을 Public School이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장의 개혁은 1840~1850년에 걸쳐 Public School에도 번지게 되었다. 따라서 競技 禮養 團體精神의 禮讚이란 바람이 일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스포츠는 Public School의 人間形成의 貢獻으로 全世界로 普及되기에 이르렀으며 19C 末에는 근대 올림픽 경기가 불란서의 쿠베르탕 남작에 의해 始作되어 점점 스포츠 熱은 높아간 것이다.

VII. 現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19C 末부터 20C에 접어들면서 유럽列強은 自國을 擴大하려고 亞世亞, 아프리카 太平洋方面에 침투하여 世界帝國을 꿈꾸었다. 이런 세력다툼은 마침내 兩次に 걸친 世界大戰을 誘發하게 되었다.

이 大戰을 겪은 후 被支配 민족들은 民族的 自覺에서 帝國主義에서 解放되어 독립하게 되었으며 世界人類는 크게 각성하여 帝國主義를 止揚하고 하나의 世界를 爲해서 相扶相助하는 方向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世界政府를 目標로 韓國聯이라든가 文化交流를 通해 戰爭이 이 地球上에서 永遠히 끝나고 世界文化를 建設하는 것을 目標로 세워진 유네스코 등은 모두 치열한 世界 戰爭의 結果 人類가 깨달은 값있는 成果였다¹⁵⁾.

이런 狀況속에서도 自由主義 陣營과 共產主義 陣營과의 對立은 차츰 露骨化하여 政治, 經濟, 思想, 科學에 뿐만 아니라 現代人의 生活觀에 까지 큰 變革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最近에는 危機意識마저 불러 일으킨다.

以下 兩陣營의 體育이 어떤 樣相을 띄고 있는가를 代表國을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련의 體育과 人間形成

소련의 체육은 國家의 統制下에 強力한 組織을 갖고 旅行된다. 이 體制는 革命時 50年의 歷史를 經過하는 사이에 많은 變化와 發展을 보았다.

最近에는 共產黨 中央委員會가 中心이 되어 法律을 만들고 여러 階層의 組織(市區) 즉 적은 組織까지 包含해서 體育活動을 義務化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큰 企業體에는 큰 都市보다도 훌륭한 스포츠센터를 지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크게 活用되고 있으며 虛弱者는 그들 나름의 그룹을 만들어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게데오」¹⁶⁾란 制度를 만들어 男女老必를 막론한 全國民이 스포츠에 參加하도록

15) 韓基彥 著 教育史 法文社 1972. P. 458

16) 학생체육연구회, 학교체육론, 교육과학사 1968. P. 38

특하고 있으며 “(1+2)運動”¹⁷⁾을 展開하여 底邊擴大에 힘쓰고 있다.

科學의 發展에 따라 體育研究所나 스포츠 醫學研究所 등이 만들어져 國民의 體力向上을 돕고 있으며 農村體育를 爲해 스포츠 大學 入學生의 30%는 農村出身을 뽑고 있다. 見聞談에 依하면 베네티스타디움에는 200名(50~80歲)의 老人들이 아침부터 나와 排球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며 그들의 會員은 6,000名에 達한다고 한다.

以上 皮相的으로 소련의 體育實情을 概觀하였거니와 치밀한 組織下에 體育의 諸般面에 큰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런 身體育成이 共產主義 이데오르기와 祖國守護라는 精神的인 基調 위에 人間을 育成하고 있으며 健康한 身體는 生産性 있는 勞動力과 결부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國防과 共產主義 理念 具現을 爲한 有能한 人間을 育成하는데 注力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美國의 體育과 人間形成

美國은 유럽 各地에서 移住해온 新大陸 國民으로서 저마다의 뚜렷한 個性을 지녔다는 것과 황무지에서 土着民과 싸우면서 이룩된 開拓精神의 바탕위에 세워진 合衆體制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自由롭고 個人主義的인 社會體制를 如何히 調整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合衆國인 美國에 當面하는 課題인 것이다. 이런 觀念을 念頭에 새기고 體育를 살피야 할 것이다.

이들은 英國의 영향을 받아 19C 中葉부터 푸로웨쇼날리즘에 대항하여 아마추어리즘이 싹트기 始作했다¹⁸⁾ 그러나 教育으로서의 發展은 20C에서 부터 현저한 成長을 보게 된다.

이 契機로서 第一次 世界大戰을 들어야 할 것이다. 즉 徵兵檢査에 依해 國民의 身體狀態가 크게 우려됐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學校의 擴張, 教育觀의 革新 教育內容 및 方法의 改善 등이 展開되어 體育도 이때에 顯著한 發展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 時代에 Wood는 獨逸體操나 스웨덴 體操가 中心이 되어 있는 從來의 教育을 비판하고 健康은 主目的이 아니고 副產物이어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體育은 心理學, 生理學, 教育學 등의 諸科目에 依存하고 또 體育은 全體로서의 教育과 他教科와 有機的으로 關聯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Hetheinton은 “新體育”의 教育課程을 器管의 教育, 精神運動의 教育性格, 教育, 知的教育의 네가지 局面에 關해 論했다.

이렇게해서 擴張된 體育概念은 次次 支持를 받게 되어 Nash나 Williams에 依해 1930年 以後의 時代는 「體育은 身體의 教育이기 보다는 오히려 身體를 通해서의 教育이다」라는 定義에 이끌려 간다¹⁹⁾.

이리하여 지금까지 特別教科로 다루었던 體育은 一般教育의 一領域으로 되면서 體育의 科學化 運動과 함께 急進前을 보았고 한편 스포츠活動은 보는 스포츠에서 行하는 스포츠로 옮겨지기 始作하였다²⁰⁾.

17) 한 스포츠맨이 두사람의 친구를 끌어들이 스포츠를 권유하는 운동

18) 體育概論, 최인범 교학사 1973, P. 32

19) 體育史概說, 이태화 1974, P. 181

20) 세계스포츠의 歷史 학생연구회, 교육과학사 1973, P. 202

이런 狀況에서 第二次 世界大戰을 맞았다. 大戰準備를 위해 兵役檢査를 實施한 結果 不合格者는 30%에 達했다²¹⁾. 이 事實에 놀란 當局은 靑少年의 Fitness 特히 Physical fitness를 重히 여기고 大統領을 中心으로 靑少年 適性運動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教育 當事者는 學校教育計劃을 再檢討하기에 이르러 적절한 운동 訓練과 함께 精密한 能力檢査를 實施하게 되었다.

한편 體育 當事者는,

첫째, 體育의 目的이 一般 教育의 目的에서 벗어나지 말것.

둘째, Recreation 指導는 地域社會와 關聯을 갖고 行할 것.

셋째, 身體面에서의 教育을 通해 國家의 適性運動에 參與할 것 등의 基本原則을 세웠다.

以上の 觀察을 要略하면,

첫째, 合衆體制의 基本原理에 立脚한 人間形成을 企圖하고 있다는 것.

둘째, Recreation을 地域社會와 關聯시켜 人間教育의 合理化를 求하는 것.

셋째, 適性運動을 통한 人間育成의 科學化 등이 될 것이다.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制限된 資料를 갖고 歷史의 事實위에 展開된 體育을 人間形成이란 側面에서 考察해 본 結果는 다음 몇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開花期와 繁盛期에는 體育을 통한 人間形成의 作業이 強力히 또는 順調롭게 잘 進行되었다는 것이다. 卽 身體育成의 課程을 通해서 그 時代와 社會가 要求하는 心身의 諸要素를 卡했다고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形態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國家를 至上에다 놓고 各 個人을 거기에 끌어 들인 面과 個人의 福祉를 基盤으로 社會의 發展을 企圖한 것이 되겠다. 즉 人間 育成의 焦點을 國家에다 두느냐 個人에다 두느냐의 問題다. 前者에 屬하는 代表國이 스페르타와 독일(兩次大戰間)이며 後者에 屬하는 代表國이 아테네와 美國이다.

둘째, 體育을 等閑視 했거나 娛樂視한 結果는 國家의 終末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즉 古代國家들의 末期는 知的 偏重, 職業選手의 登場, 스포츠의 野獸化 내지는 快樂化 觀衆中心의 傾向 등으로 終末을 재촉했던 것이다. 이는 歷史가 남긴 쓰라린 敎訓으로 現代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反省을 促求하는 것이다.

셋째, 諸般時代의 體育이 心身兩面의 發達을 企圖한 것만은 事實이나 心身二元論의 立場에서 體育을 行使하였으며 現代에 들어오면서 心身一元論의 土台가 마련은 되었으나 아직 專門의 研究가 不足하다. 다시 말해서 體育을 통한 人間形成의 바탕을 보다 公高히 하려면 心身의 問題 研究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現代는 科學文明에서 비롯한 諸社會現象으로 因하여 人間의 主體性은 危機에 處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現實을 예리하게 진단하여 主體性確立을 根幹으로 하는 人間育成의 方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人間育成面에서 體育은 國家와 社會의 要求에 잘 이용됐다는 것을 歷史는 보여준다.

21) 體育原理委員會編 人間形成論 不味堂 1964. P. 13

體育 普通한 人間形成의 史的 考察

다시 말하면 體育은 어떤 形態의 人間을 育成하는데 가장 빠른 領域이 되는 것이다. 百知不如一行은 이를 잘 代辯해 준다.

이런 體育教育에 國家的인 보다 健實한 對策과 學校當局의 보다 協助的인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1976학년도 광주 서원전문학교 학술 연구개발 계획에 의한 것임.

《參 考 文 獻》

- 1) 金大植外人譯, 체육심리학, 普信文化社 1972.
- 2) 金平玉 譯, 에밀, 畝知社, 1972.
- 3) 金鍾先 著, 기초체육교육, 보신문화사, 1973.
- 4) 大韓體育會, 體育白書, 1975.
- 5) 東京教育大學體育學部 체육연구실 圖說世界體育史 新思潮社 1964.
- 6) 이래화 체육사 형성출판사 1974.
- 7) 柳 玲 譯, 일리아드, 오딧세이, 正音社 1971.
- 8) 梁秉祐 譯, 西洋文化社, 乙酉文化社 1967.
- 9) 韓基彥 著, 教育社, 法文社 1972.
- 10) 韓基彥 譯, 교육사상사, 문교부 1663.
- 11) 崔仁範 체육개론, 수상계사 1973.
- 12) 올림픽의 역사, 학생연구회, 교육과학사 1973.
- 13) 세계스포츠의 역사 학생연구회 교육과학사 1973.
- 14) Burnham: Physical Fitness, New York: The Macmillan Co., 1972.
- 15) E. W. Nizon, F. W. Conzens: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1974.
- 16) Leonard: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68
- 17) Williams: The Principle of Physical Education Menlo Park, Californi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1971